

GM·조선업 협력업체 자금난 해소

중기진흥공, 추경 통과 제도약지원자금 지원 예산 2000억원 중 270억원 전북에 추가 배정
평년도 지원비율 3배 가량 늘어 배정금액 큰 폭 증가... 대출금리 0.5~1.05% 낮게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상직 이사장)이 전북지역 내 GM·조선업 협력업체들의 경영안정 및 사업다각화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정부추경에 통과된 긴급경영안정자금·제도약지원자금 지원 예산 2,000억원 중 270억원을 전북지역에 추가 배정했다.
이는 군산지역 경제위기 상황 등을 특별히 고려한 이상직 이사장의 적

극적인 지원의지로 증진공 자금관련 추경예산 중 13.5%를 배정한 것으로써 인구 및 기업수 등을 고려한 평년도 전북지역 지원비율(4~5%)보다 약 3배 늘어난 수치로 배정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가배정으로 소진이 임박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제도약지원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전북지역 내 GM·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매우 큰 도움이 예상된다.
자금별로 전북지역 배정내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제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재창업자금) 70억원으로, 특히 GM·조선업 협력업체들에 한해 대출금리를 0.5~1.05%를 낮게 지원한다.
특히 군산지역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50억원, 제도약지원자금 50억원, 총 200억원을 긴급 추가 배정했다.

한편, 전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에 7월중 중소기업연수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사회적경제활성화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군산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군산지역 협력업체들이 예전처럼 활기찬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피해자 입장에서 맞춤형 지원 강화”

송헌만 신임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송헌만 제3대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67)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송인택 전주지검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관할 자치단체장 및 도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70여 명의 유관 기관장, 단체

장이 참석했다.
송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체 위원의 뜻을 한곳으로 모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송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전주범죄 부이사장 겸 사법보좌본부 과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이후 18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전북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전주호남주류상사·송민체인본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뉴시스



전국 지자체 일자리 최우수상 수상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우수평가 지자체장, 관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전북도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농촌개발사업 1690억 투자

도, 중심지활성화·테마공원 조성 등 17개 사업에

전북도는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개 사업에 1,69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농촌개발 사업은 농촌마을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농업 생산기반 시설 정비에 위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촌관광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또한,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에 243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정비, 주민편의 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976억원을 투자하여, 농촌 중심지를 경쟁력을 갖춘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김진성 기자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전주농협 마중지점 개점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지난 19일 전주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최찬욱 시의원, 조인갑 전북농협 부본부장을 비롯한 1백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농협 마중지점을 개점식을 했다.
금년초 홍산지점 개점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지점 개점을 하는데 이로써 전주 시내에 18개 지점을 운용하게 된다.
작년말 전북농협 최초 대출금 1조원을 돌파에 이어 사업신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이번 개점하는 마중지점은 그 이름에 걸맞게 금융업무의 최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패기 넘치는 40



대 초반의 젊은 지점장을 임명하겠다고 하고, 사업신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사업 신장을 기반으로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다”며 밝혔다.

/김영태 기자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기업 6개사 모집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옥 CO-work 공간 활용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이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 콘텐츠 기업의 홍보와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돕는다.
진흥원은 지역 내 스마트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전주한옥마을 내 위치한 한옥 CO-work 공간에서 기업의 제품 런칭 및 오프라인 소비자 반응 조사 등을 위한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기업 6개사를 상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스마트콘텐츠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초기 홍보 및 리뷰 등 소비자 반응을 현장에

서 체감하고 마케팅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진흥원은 각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는 한옥마을의 장점을 살려 한옥 CO-work 공간을 활용, 제품시연·홍보물, 콘텐츠 런칭을 위한 이벤트 등 초기마케팅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ca.or.kr)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방문 또는 메일(hjh4u@jca.or.kr)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063-281-4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경비지도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 경력증명 간소화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 경력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14종 국가전문자격은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순해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호텔경영사 등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일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과 자격증 발급 신청시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을 제출하지 않고도 시험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